

용인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경관의식 조사

- 시민, 공무원,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

성 현 찬¹⁾

¹⁾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andscape Awareness Survey for Improvement of Urban Landscape in Yong-in city

- Focusing on Residents, Government Officials, and Developers -

Sung, Hyun-Chan¹⁾

¹⁾ Senior Researcher, Kyonggi Research Institute.

ABSTRACT

This study aims at conducting an awareness survey of three parties, namely, citizens, government officials, and developers for improvement of urban landscape and, based on the survey result, to suggest a direction to develop a landscape plan for improvement of urban landscape of Yong-in city in the future.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case of Yong-in, the main drivers of forest landscape destruction were “residential complexes developed for apartment buildings” and “golf courses”, the driver of river landscape damage was “the status of cleanliness of riverside and poor facilities”, the driver of roadside landscape damage was “construction sites” that completely eliminate original natural landscape in both citizen and government official groups. When granting development-related approvals in the future, appropriate actions should be prepared such as developing a landscape management guideline or including a landscape plan in advance to assure plans and designs fully reflecting landscape.

Second, citizens’ commitment to participate in urban landscape creation and improvement was rated high at even willing to tolerate regulations including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In the future, landscape improvement programs allowing resident participation should be developed proactively. The roles of government officials include preparing various criteria at a city level and convincing and guiding citizens to initiate landscape improvement project together with citizens and developers through proactive efforts by government officials.

Third, the role of developers would be to realize development projects conserving local environment and/or harmonizing with local natural environment before preparing a development plan or launching

construction rather than offering various considerations after executing development projects.

Key Words : *Direction of urban landscape improvement, The role of a government official, And the role of a developer.*

I. 서 론

최근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시경관을 집중적으로 파괴하는 현상이 나타나 심각한 경관훼손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경관을 고려한 설계를 하거나,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등,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관계획의 수립 및 경관개선 방향의 경우, 대부분이 개발사업자에 속하는 설계자 자신의 기호 및 판단이거나, 시민의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는 등, 주로 일방적인 한쪽의 수요와 의견을 따라가는 경향이 짙다. 그러다 보니, 너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의 경관조성 및 개선으로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이질적인 경관이 조성되거나, 시민의 의견만을 따라 개인의 이익만 우선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자나 시민의 단독적인 의견이 아니라, 시민, 공무원, 개발사업자, 3자의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된 경관개선 계획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며, 이렇게 되어야 수립된 경관계획 및 경관개선사업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관련된 선행연구로서는, 전문가, 대학생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경관의식조사를 통하여, 특정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던 연구로서, 양병이(1990)는 카플란(Kaplan)의 정보처리모형을 우리나라 경관에 적용시켜 경관선호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의식조사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변재상 등(1999)은 도로경관에서 시각적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서주환·최현상(1999)은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선호도 변화에 대한 연구에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배현진·박영기(1999)는 피험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한 가로경관의 선호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김종구(2001)는 가로경관을 바라보는 개인의 속성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고찰하기 위하여 13가지 가로경관을 선정하고, 응답자 개인의 속성 차이에 따른 가로경관의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윤희(2002)는 경관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경관의 시각적 선호에 따른 계절의 변화를 조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적 속성 차이에 의한 계절별 경관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의식조사를 실시한 연구로서, 이규목(1993)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윤인규(1993)는 서울시의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세우기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서울시내의 대표적인 경관자원 발굴하고자 하였다. 김용수 등(2001)도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하여 대표경관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관자원을 찾아내고, 이들이 실제로 현재 도시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희경(1996)은 설문조사뿐 아니라, 인지지도의 작성과 주민과의 공동기행을 통하여 고양시의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하는 다면적인 조사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한 개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시민, 공무원, 개발사업자 등 3자간의 종합적인 의식조사를 통하여 경관개선 방안을 분석하고 종합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배경 하에서,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경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용인시(그림 1, 2 참조)를 대상으로, 경관개선을 요구하는 층의 시민, 실제로 경관개선을 제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공무원, 경관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개발사업자, 3자에 대해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검토함으로써, 향후 용인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경



그림 1. 용인시의 지역 개요



그림 2. 용인시 수지구 지역의 경관훼손 현황

관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의식조사의 개요

의식조사는 2000년 7월에서 8월말까지 2달간 실시되었으며, 용인 시민, 용인시 공무원, 용인시의 개발과 관련된 개발사업자 등 3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시민의 경우는, 총 인구 359,406명에 대해 1,107명(0.31%)의 표본을 설정하고, 3개 읍, 7개 면, 4개 동, 총 14개 지역 별 인구 비례로 표본 수를 추출하였다(그림 1 참조). 다음으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소득별 등의 분포에 있어서 각 집단별로 층화 비례로 추출하고, 조사원이 직접 해당지역 시민을 방문하여 응답자 면접 후, 회수하는 방문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총 표본 수는 약 1,100매로 95% 신뢰수준에서 표본 오차를 백분비로 최대 $\pm 3.1\%$ 정도로 묶어 두는 표본 수로서, 일정한 정밀도가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응답자의 특성으로, 남녀 비율은 남자 52.9%, 여자 45.9%, 연령구조는 항아리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소득수준은 연간 3,000만원 이하가 90% 이상이었다. 둘째, 공무원의 경우는, 개발 및 경관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용인시청 내 54명, 기흥읍 등 3개 읍에 32명, 포곡면 등 7개 면에 56명, 중앙동 등 4개 동에 16명, 총 158명을 표본 추출한 다음, 의식조사 설문지를 공문으로 발송하고, 우편 및 팩스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

을 이용하였다. 총 158부의 의식조사 설문지가 발송되었으며, 127부가 회수되어 80.4%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셋째, 개발사업자의 경우는, 용인시에 직접적인 개발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중인 업체로서, 한국토지공사(20부), 대한주택공사(20부), 용인시 건설관련업체(10부, 우대기술단 등)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식조사 설문지를 공문으로 발송하고, 우편 및 팩스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총 50부의 의식조사 설문지가 발송되었으며, 30부가 회수되어 60%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2. 설문지의 내용 구성 및 분석방법

시민, 공무원, 개발사업자 등 3자의 용인시의 경관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고, 경관개선에 대한 방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는 크게 4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도시경관 의식에 관한 부문'은 용인시 경관에 대한 관심도, 선호 경관의 유형과 선호 주거지 형태, 선호하는 자연경관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둘째, '용인시 경관의 훼손요인 및 정도' 부문은 산림경관, 하천경관, 도로변 경관을 훼손시키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와 함께 용인시의 경관훼손 정도를 파악하며, 셋째, '용인시의 경관자원' 부문은 앞으로 용인시의 경관개선을 위한 자원을 파악하고 경관개선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상징요소, 용인의 좋은 장소와 싫은 장소 및 그 이유, 용인시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색, 대표하는 산, 부족한 녹지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바람직한 용인시의

경관개선을 위한 방향 및 역할' 부문은 바람직한 용인시의 경관개선 목표 상, 도시경관 형성 및 개선을 위한 방향, 시민과 공무원, 개발사업자의 역할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결과는 PC-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도시경관 인식

1) 용인시 경관에 대한 관심도

용인시민의 경우는 경관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다'가 43.3%, '아주 많다'가 17.3%로 절반 이상(60.6%)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용인의 경관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경우 관심도가 '조금 있다' 이상이 78.0%, 개발사업자의 경우 80.0%로 시민의 경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용인시의 최근의 급격한 개발실태에 비추어볼 때 상당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림 3에서 보면,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개발사업자는 경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식조사 결과에서는 가장 경관에 관심이 많은 집단('아주 많다'가 40%, '조금 있다'가 40%)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선호 경관의 유형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경관의 유형은, 세 집단 모두 '산이 있는 경관', '물이 있는 경관'의 순으로 나타나, 큰 차이 없이 산과 물이 있는 경관이 가장 선호하는 경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용인시 경관의 배경으로서 산림과 물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 참조).

3) 선호 주거지 형태

선호하는 주거지 형태는 전체적으로 '교외전원주택'이 50% 이상의 비율로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도시아파트', '도시단독주택'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의 특색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즉, 집합적인 택지의 개발지보다는 경관이 어느 정도 수려한 전원형 주택의 요구도가 높았다(표 2 참조).

표 1. 선호 경관의 유형

구 분	시 민		공무원		개발사업자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물	279	25.2	36	28.3	8	26.7
산	644	58.2	51	40.2	21	70.0
문 화 재	94	8.5	7	5.5	0	0.0
건 축 물	27	2.4	7	5.5	1	3.3
시내가로	55	5.0	19	15.0	0	0.0
무 응 답	8	0.7	7	5.5	0	0.0
계	1107	100	127	100	30	100

표 2. 선호 주거지 형태

구 분	시 민		공무원		개발사업자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도시아파트	168	15.2	15	11.8	6	20.0
도시 단독	168	15.2	12	9.4	4	13.3
교외 전원	625	56.5	66	52.0	18	60.0
농촌 주택	107	9.7	24	18.9	2	6.7
전통 건물	35	3.2	6	4.7	0	0.0
무 응 답	4	0.4	4	3.1	0	0.0
계	1107	100	127	100	30	100

4) 선호 자연경관의 구성요소

선호하는 자연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산', '꽃', '물'의 요소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요소의 순위에 있어서는 시민과 개발사업자의 경우, '산'의 요소를 가장 선호(39.0%, 43.3%)하고 있으나, 다음 순위로 시민은 '꽃(31.9%)'을, 개발사업자는 '물(40.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경우는 '꽃(33.9%)'의 요소를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 '물(29.9%)', '산(22.8%)'을 꼽고 있어, '산'의 요소가 3순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응답결과에서, 1순위인 '꽃'의 경우는 '산', '물' 요소와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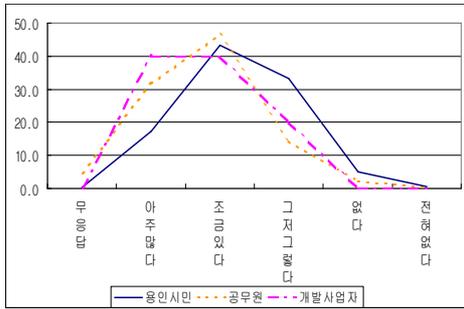


그림 3. 용인시 경관에 대한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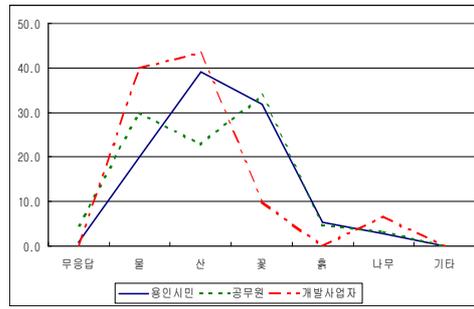


그림 4. 선호 자연경관의 구성요소

리 도시에서는 인공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요소로서, ‘선호경관의 유형’ 응답결과와 연계하여 해석(‘시내 가로경관’의 선호도가 3순위로 높았음)해 볼 때, 공무원의 경우, 인공적 경관요소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4 참조).

2. 도시경관의 훼손요인 및 정도

1) 산림경관을 훼손시키는 요소

용인시에서 산림경관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요소로는, 시민, 공무원 차이 없이, ‘택지 개발된 아파트’, ‘골프장’을 가장 큰 훼손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골프연습장’과 ‘공장’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3 참조). 실제로도 2002년 현재 용인시의 경우, 택지개발이 18개소(11개소는 시행 중)가 이루어져 경기도 전체 사업물량의 12%를 차지(경기개발연구원, 2002)하고 있으며, 골프장의 경우도 총 25개소(경기도, 2002)가 조성되어 있어 전국 골프장 161개소의 15.5%, 경기도 골프장 82개소의 30.5%가 용인시에 몰려있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개발 시에는 산림을 주로 훼손하게 되는 아파트, 골프장의 허가 시에 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관계획을 사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하천경관을 훼손시키는 요소

하천 변 경관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요소로는, 역시 시민, 공무원 차이 없이, ‘하천 변 청결상태’와 ‘하천 변 불량시설’을 가장 큰

표 3. 산림경관을 훼손시키는 요소(중복응답)

구 분	시 민		공무원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골프장	598	27.0	74	29.1
골프연습장	267	12.1	19	7.5
공 장	282	12.7	17	6.7
택지개발아파트	660	29.8	105	41.3
대형물류시설	133	6.0	10	3.9
주유소	37	1.7	6	2.4
유원지/관광지	118	5.1	2	0.8
기 타	21	1.2	5	2.0
무응답	98	4.4	16	6.3
계	2214	100	254	100

표 4. 하천경관의 문제점(중복응답)

구 분	시 민		공무원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조망차단	242	10.9	15	5.9
건축물외관디자인	63	2.8	9	3.5
교량외관	80	3.6	2	0.8
콘크리트제방	259	11.7	48	18.9
하천변 불량시설	538	24.3	62	24.4
하천변 주차장	165	7.5	26	10.2
하천변 청결상태	796	36.0	71	28.0
기 타	21	0.9	6	2.4
무응답	50	2.3	15	5.9
계	2214	100	25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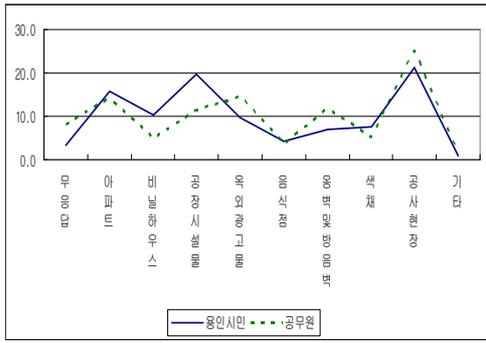


그림 5. 도로변 경관을 훼손시키는 요소(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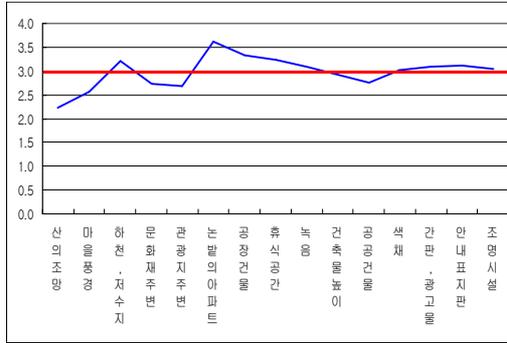


그림 6. 읍/면/동의 주변경관 훼손 정도

훼손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콘크리트 제방’ 등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4 참조). 따라서, 앞으로 하천경관의 개선을 위해서는 하천주변의 정기적인 정비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도로변 경관을 훼손시키는 요소

용인시에서 국도나 고속도로변의 주변에서 가장 경관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요소로는, 시민, 공무원 모두 ‘공사현장(21.3%, 25.2%)’을 가장 큰 훼손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 외의 순위에 있어서는 시민과 공무원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경우에는, ‘공장시설물(19.6%)’, ‘고층아파트(15.8%)’, ‘비닐하우스(10.4%)’를 훼손 요소로 보고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물(14.6%)’, ‘고층아파트(14.2%)’, ‘옹벽/방음벽(11.8%)’을 훼손 요소로 보고 있었다. 즉, 공사현장과 같이 원래의 자연경관이 완전히 제거되어진 부분을 가장 큰 훼손 요소로 보고 있으며,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들을 다음 순위의 훼손 요소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사업 입지의 경관 검토 및 공사현장의 적절한 경관보완 및 차폐를 통한 경관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각종 시설물들의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경관관리 및 유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그림 5 참조).

4) 용인시내 읍/면/동의 주변경관 훼손 정도 (용인시민)

시민을 대상으로, 현재 살고 있는 동네 주변

경관의 항목별 훼손 정도를 5점 척도(① 매우 좋다(1점), ② 좋다(2점), ③ 그저 그렇다(3점), ④ 나쁘다(4점), ⑤ 아주 나쁘다(5점))로 측정하여 수치화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훼손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 ‘논밭에 세워진 아파트(3.6점)’였으며, ‘공장건물(3.3점)’, ‘하천·저수지 주변(3.2점)’, ‘휴식공간(3.2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아직은 경관 훼손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는 ‘산의 조망(2.2점)’, ‘마을풍경(2.6점)’, ‘문화재 주변(2.7점)’, ‘관광지 주변(2.7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해 본 결과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논밭의 아파트’가 주변환경을 훼손시키는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기흥읍의 경우는 ‘하천·저수지 주변’이 ‘논밭의 아파트’와 같은 정도의 측정결과가 나왔으며, 남사면의 경우는 ‘안내 표지판’이 가장 훼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즉, 용인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당한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남사면 지역은 논·밭 가운데의 안내 표지판이 경관 훼손을 심화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6 참조). 앞으로 남사면의 경우는 안내표지판에 대한 중점관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도시경관자원

1) 용인시의 상징요소

장소, 물체, 이미지 등을 포괄한 용인시의 상징요소로서는, 장소를 중심으로 한 응답이 대

부분이었는데, ‘에버랜드’가 가장 압도적이었으며, 다음으로 ‘민속촌’을 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용인의 상징요소로서는 ‘에버랜드’와 ‘민속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개발’, ‘골프장’, ‘아파트’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장소를 소수의 상징 요소로 응답하고 있어, 현재의 부정적인 경관요소를 도시의 상징으로 이미지 화하려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징 요소를 적극적으로 경관자원으로 활용하되, 부정적 요소에 대한 시급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이다(표 5 참조).

표 5. 용인시의 상징요소

구 분	시 민		공무원		개발사업자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에버랜드	430	33.5	80	37.2	13	36.1
민속촌	239	18.6	38	17.7	7	19.4
급격한 개발	69	5.4	7	3.3	4	11.1
골프장	58	4.5	19	8.8	1	2.8
아파트	47	3.7	8	3.7	2	5.6
대학교	35	2.7	2	0.9	-	-
자연경관	22	1.7	3	1.4	-	-
박물관	12	0.9	13	6.0	-	-
신도시	19	1.5	2	0.9	2	5.6
기타	170	13.2	30	14.0	4	11.1
무응답	184	14.3	13	6.0	3	8.3
계	1285	100	215	100	36	100

2) 용인의 좋은 장소와 이유

용인시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곳이나 권하고 싶은 좋은 곳으로는 역시 ‘에버랜드’와 ‘민속촌’을 들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서는 ‘좋은 시설(13.9%)’, ‘교육적 시설(11.8%)’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역시 앞으로 인위적인 요소와 자연적·문화적·교육적 요소의 통합적 개발이 필요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6. 용인시에서 좋은 장소

구 분	시 민		공무원		개발사업자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에버랜드	277	26.9	41	44.1	16	50.0
민속촌	165	16.0	31	33.3	4	12.5
광교산	35	3.4	2	2.2	-	-
와우정사	13	1.3	2	2.2	-	-
현충탑	10	1.0	-	-	-	-
기타	127	12.3	-	-	8	25.0
무응답	404	39.2	17	18.3	4	12.5
계	1031	100	93	100	32	100

3) 용인시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소와 이유
 용인시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곳으로는, 많은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용인시민과 공무원의 경우는 ‘하천’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으며, 개발사업자의 경우는, ‘아파트 공사현장’, ‘급격한 개발지역’을 지적하고 있었다(표 7 참조). 시민과 공무원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산림 및 도로변 경관 훼손 요소에서는 ‘택지 개발된 아파트’와 ‘공사현장’을 들고 있었으나, 정작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소로서는 거의 선택하지 않았으며, 개발사업자의 경우는 본인들이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급격한 개발지역’ 등을 스스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소로 들고 있는데,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아직은 경관과 조화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또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시민과 공무원의 경우 ‘지저분하다(24.5%, 26.0%)’, ‘자연이 훼손되어서(6.3%, 4.6%)’로, 개발사업자의 경우는 ‘미관이 저해되어(23.3%)’, ‘교통이 혼잡해서(13.3%)’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용인시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색

앞으로의 경관개선 계획이나 관리를 위하여 설문한, 용인시를 대표 또는 상징하는 색으로는, 세 집단 모두 ‘녹색’, ‘청록’, ‘연두’의 순으로서 녹색계열을 대표 상징 색으로 꼽고 있었다(표 8 참조). 이 결과 도출된 녹색계열의 상징 색은 앞

으로의 경관개선 계획의 수립 시나, 색채계획 시에 반영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표 7. 용인시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소

구 분	시 민		공무원		개발사업자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하 천	103	9.3	22	17.5	2	6.7
급격한 개발지역	43	3.9	1	0.8	4	13.3
신갈저수지	30	2.7	3	2.4	-	-
쓰레기장	30	2.7	-	-	-	-
아파트공사현장	27	2.5	2	1.6	5	16.7
골프장	25	2.3	-	-	-	-
장터(재래시장)	29	2.6	8	6.3	-	-
신갈 5거리	24	2.2	3	2.4	1	3.3
기 타	259	23.5	51	40.5	8	26.7
무 응 답	532	48.3	36	28.6	10	33.3
계	1102	100	126	100	30	100

표 8. 용인시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색

구 분	시 민		공무원		개발사업자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빨 강	21	1.9	4	3.1	1	3.3
주 황	25	2.3	5	3.9	2	6.7
노 랑	43	3.9	4	3.1	1	3.3
연 두	115	10.4	19	15.0	4	13.3
녹 색	504	45.5	42	33.1	14	46.7
청 록	220	19.9	26	20.5	3	10.0
파 랑	90	8.1	16	12.6	2	6.7
남 색	30	2.7	3	2.4	0	0.0
보 라	3	0.3	1	0.8	1	3.3
자 주	4	0.4	2	1.6	0	0.0
흰 색	12	1.1	1	0.8	1	3.3
검 정	7	0.6	0	0.0	0	0.0
회 색	9	1.7	4	3.1	1	3.3
무응답	14	1.3	0	0.0	0	0.0
계	1107	100	127	100	30	100

5) 용인시를 대표하는 산(용인시민)

앞으로의 경관개선 계획이나 관리를 위하여 설문한, 용인시를 대표하는 산으로서는, 용인시의 서북부에 끝에 위치하며 수원시와 공유하고 있는 ‘광고산’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표 9 참조). 이는 실제보다는 이미지가 오래 기억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광고산은 최근의 급격한 택지개발 등이 산 중턱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므로, 앞으로 경관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의 수립 시 광고산에 대한 보전 대책 및 경관관리 대책이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부족한 녹지의 유형

앞으로의 경관개선 계획이나 관리를 위하여 설문한, 용인시에서 부족한 녹지의 유형으로는, 시민과 공무원 모두 ‘공원·광장’을 가장 부족한 녹지 유형으로 지적하였으며, ‘건물주변의 식재’, ‘가로수’의 순으로 부족하다고 답하고 있었다(표 10 참조). 이 결과를 최근의 용인시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민의 생활주변에서 필요한 공원·녹지, 건물주변의 식재, 도로변의 가로수 등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결과는 앞으로의 도시계획 및 경관계획의 수립 시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표 9. 용인시를 대표하는 산

구 분	빈도(명)	비율(%)
광고산	243	22.0
노고봉	52	4.7
성 산	51	4.6
돌봉산	43	3.9
감골산	42	3.8
앞산, 뒷산	32	2.9
태화산	29	2.6
노리산	28	2.5
기 타	133	12.0
무응답	452	40.9
계	1105	100

표 10. 부족한 녹지의 유형

구 분	시 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가로수	248	22.4	16	12.6
산의 나무	133	12.0	2	1.6
꽃	141	12.7	8	6.3
건물주변 식재	190	17.2	22	17.3
공원, 광장	388	35.0	77	60.6
무 응 답	7	0.6	2	1.6
계	1107	100	127	100

4. 바람직한 경관개선을 위한 방향 및 역할

1) 바람직한 경관개선의 목표 상

용인시의 바람직한 경관개선의 목표 상에 대해서는, 시민, 공무원, 개발사업자 모두 ‘쾌적한 도시(20.4%, 17.7%, 23.3%)’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다음으로 ‘역사·문화가 있는 도시’, ‘풍요로운 도시’, ‘아름다운 도시’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2) 도시경관 형성 및 개선을 위한 방향(용인 시민)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경관개선의 목표 상을 달성하기 위한, 경관개선의 방향을 설문한 결과, ‘수목·능선의 보호(17.9%)’와 ‘하천과 저수지 주변의 정비(17.2%)’, ‘공원·광장을 만들고 나무를 많이 심는 것(16.1%)’을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지금까지 용인시 경관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요소들에 대한 응답과 동일하였다.

지역별로 분석해 본 결과로는, 개발이 급격히 진행 중인 지역인 기흥읍, 수지읍, 남사면, 역삼동, 유림동은 ‘수목·능선의 보호’를, 공장 등의 시설물이 산재한 포곡, 모현, 백암, 양지면은 ‘하천과 저수지주변의 정비’를, 휴식공간이 부족한 구성읍, 원삼면은 ‘공원·광장을 만들고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을, 문화재가 산재한 이동면, 동부동은 ‘문화재 보존’을, 가장 도시화된 지역인 중앙동은 ‘용인을 상징할 수 있는 장소나 상징물을 만드는 것’을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다.

이 설문결과는 앞으로 용인시 전체 및 각 지역별 경관개선 계획의 수립 시 중요한 사항으로 반영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표 12 참조).

표 11. 바람직한 경관개선의 목표 상

구 분	시 민		공무원		개발사업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개성있는	123	5.6	31	12.2	6	10.0
풍요로운	253	11.4	24	9.4	7	11.7
매력있는	120	5.4	7	2.8	3	5.0
아름다운	231	10.4	36	14.2	4	6.7
새로태어나는	150	6.8	10	3.9	3	5.0
쾌적한	451	20.4	45	17.7	14	23.3
주민에 의한	173	7.8	8	3.1	1	1.7
역사문화가 있는	276	12.5	40	15.7	8	13.3
상징적인	50	2.3	3	1.2	1	1.7
센스있는	20	0.9	0	0.0	0	0.0
세련된	67	3.0	7	2.8	1	1.7
운치있는	78	3.0	13	5.1	2	3.3
안정감있는	91	4.1	10	3.9	1	1.7
인간적인	67	3.0	11	4.3	7	11.7
통일감있는	27	1.2	5	2.0	2	3.3
무응답	37	1.7	4	1.6	0	0.0
계	2214	100	254	100	60	100

표 12. 도시경관 형성 및 개선을 위한 방향

구 분	빈도(명)	비율(%)
상징장소나 상징물을 만들	376	11.3
경관관람장소를 만들	276	8.3
수목과 능선보호	595	17.9
문화재 및 주변경관 보존	383	11.5
하천, 저수지 정비	572	17.2
상징거리 정비	101	3.0
공원·광장만들	534	16.1
건물디자인을 고려	52	1.6
건축물, 간판의 색채기준만들	58	1.7
경관저해요인없앰	78	2.3
라이트업으로 야경연출	26	0.8
지역경관정비 사업에 재정지원	95	2.9
교육 및 홍보	102	3.1
기 타	3	0.1
무응답	70	2.1
계	3321	100

3) 시민의 참여 및 역할(용인시민)

앞으로의 도시경관 형성 및 개선을 위한 경관 가꾸기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의사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참여하겠다’가 77.5%로 가장 많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었으며, ‘적극 참가’가 16.4%로서 93.9%의 높은 참여의사를 보여주고 있었다(표 13 참조). 또한, 경관 가꾸기를 위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활동으로서 ‘집 주변 청소’와 ‘공공장소를 깨끗이 이용하는 것’을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었다. 시민 스스로뿐 아니라 행정관서의 ‘경관개선 사업 추진 시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12.3%나 제시되었다(표 14 참조). 따라서, 앞으로 경관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시민참여 의사에 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거나 건축물의 모양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찬성한다’ 이상이 65.7%로서 적극적인

표 13. 경관가꾸기 사업의 참가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적극 참가	181	16.4
상황따라	858	77.5
불 참	58	5.2
전혀 불참	8	0.7
무 응 답	2	0.2
계	1107	100

표 14. 경관가꾸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구 분	빈도(명)	비율(%)
집 주변청소	809	36.5
공공장소 깨끗이 이용	789	35.6
스스로 할수있는 일 찾기	218	9.8
개인 재산기부	32	1.4
경관개선사업 적극 참여	272	12.3
기 타	13	0.6
무 응 답	81	3.7
계	2214	100

표 15. 재산권 제한 등 규제 수용 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무 응 답	5	0.5
매우 찬성	224	20.2
찬 성	505	45.6
그저그렇다	261	23.6
반 대	93	8.4
절대 반대	19	1.7
계	1107	100

경관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한다’, ‘절대 반대한다’는 10.1%에 불과하였다. 물론, 의식조사에서의 답변과 본인의 실제 행동은 다를 수 있겠지만,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 뿐 아니라, 경관개선을 위한 조례의 제정 등 강제적인 규제와 지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표 15 참조).

4) 공무원의 역할

공무원에 대하여, 자신의 담당 행정 또는 민원 업무에서의 경관 고려 도를 평가한 결과, 응답 공무원의 절반(49.6%) 정도가 ‘주요 업무에 경관을 고려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업무마다 고려한다’, ‘가끔 고려한다’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82.6%의 응답 공무원 대다수가, 지금도 스스로는 업무에 있어서 최소한의 경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표 16 참조). 또한, 공무원이 경관과 관련된 사업을 허가할 때 가장 신중해야 할 사업으로 지적한 것은 ‘산림 훼손과 관련된 허가(22.0%)’이었고, 그 다음으로 ‘택지개발(17.3%)’, ‘아파트(11.3%)’가 차지하여, 현재 용인시에서의 산림훼손을 전제한 각종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의 개발실태를 반영하고 있었다. 앞으로 산림훼손 관련 허가 와 새로운 택지개발 및 아파트의 건설허가 시 경관과 관련된 유도 및 지도, 경관계획의 첨부 등 경관관리를 사전에 포함할 수 있는 허가 절차의 마련과 공무원의 교육이 사전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17 참조).

향후 용인시 경관개선 계획의 추진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해,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조례나 규제를 만드는 것(28.5%)’ 보다는 ‘기준을 만들어 지도하고 유도하는 것(47.3%)’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경관개선 계획의 추진은 조례와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시에서의 각종 기준마련 등 사전준비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동반하여, 경관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시민들을 설득하고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표 18 참조).

표 16. 업무시 경관 고려도 표(공무원)

구 분	빈도(명)	비율(%)
업무마다 고려	22	17.3
주요업무에 고려	63	49.6
가끔 고려	20	15.7
전혀 고려 안함	6	4.7
무응답	16	12.6
계	127	100

표 17. 경관적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허가 사업(공무원)

구 분	빈도(명)	비율(%)
산림훼손허가	28	22.0
택지개발	22	17.3
아파트	14	11.0
건축물	9	7.1
골프장	4	3.1
공 장	4	3.1
오폐수배출업소	3	2.4
기 타	31	24.6
무응답	12	9.4
계	127	100

표 18. 경관개선 계획의 추진시 행정기관 역할(용인 시민)

구 분	빈도(명)	비율(%)
경관가꾸기 지원	252	22.8
기준을 만들어 지도	524	47.3
조례나 규제를 만들	315	28.5
관여하지 않는다	13	1.2
무응답	3	0.3
계	1107	100

5) 개발사업자의 역할(용인시민)

용인시민이 응답한 용인시 개발에서 개발사업자들의 경관 고려 도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거나, 고려하지 않는다’가 87.5%로서, 용인시민의 대부분이 개발사업자들이 각종 개발 시에 경관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 바, 이는 앞으로 개발사업자의 경관에 관한 역할이 중요하며, 또한 이러한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표 19 참조). 또한 앞으로의 개발사업 시, 경관을 배려할 수 있는 개발사업자의 역할로는 ‘물, 녹지, 지형 등의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60.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개발사업 시행 이후의 각종 배려보다는, 개발계획 수립 및 공사 착공 시 등 사전에, 지역환경의 보전 또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조화되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표 20 참조).

표 19. 개발사업자의 경관고려도

구 분	빈도(명)	비율(%)
상당히 고려	39	3.5
고려함	93	8.4
그다지 고려않음	516	46.6
고려하지 않음	453	40.9
무응답	6	0.5
계	1107	100

표 20. 개발사업시 경관에 대한 개발사업의 역할

구 분	빈도(명)	비율(%)
자연 훼손 억제	668	60.3
휴식공간, 광장 마련	209	18.9
건축물에 이미지화	105	9.5
건설시 경관정비 협조	55	5.0
경관가꾸기에 적극 참여	34	3.1
경관가꾸기사업 등에 자금 지원	23	2.1
상징건물 시공	6	0.5
무응답	7	0.6
계	1107	100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경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용인시를 대상으로, 시민, 공무원, 개발사업자, 3자에 대해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검토함으로써, 향후 용인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호 경관의 유형은 세 집단 모두 산과 물이 있는 경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용인시 경관의 배경으로서 산림과 물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보전과 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선호하는 자연경관의 구성 요소로서는 세 집단 모두 ‘산’, ‘꽃’, ‘물’의 요소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공무원의 경우 ‘꽃’과 같은 인공적 경관요소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용인시의 산림경관을 훼손시키는 요소로는, ‘택지 개발된 아파트’, ‘골프장’이었으며, 현재 살고 있는 동네 주변경관의 항목별 훼손 정도에서도 ‘논밭에 세워진 아파트’가 가장 경관훼손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앞으로 산림을 주로 훼손하게 되는 아파트, 골프장의 허가 시에 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관관리지침의 작성 및 경관계획을 사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하천경관을 훼손시키는 요소로는, ‘하천 변 청결상태 및 불량시설’이 가장 큰 훼손요소로 나타나고 있는 바, 앞으로 하천주변의 정기적인 정비와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도로변 경관의 훼손 요소로서는 원래의 자연경관이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공사현장’이었던 바, 앞으로 개발사업 입지의 경관 검토 및 공사현장의 적절한 경관보완 및 차폐를 통한 경관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각종 시설물들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경관관리 및 유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용인시의 상징요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관자원으로 활용하되, 부정적 요소에 대한 시급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녹색계열의 상징 색은 앞으로 경관개선 계획 및 색채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고, 최근 각종 개발 등이 산중턱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광고산에 대한 보전 및 경관관리 대책도 시급히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용인시의 바람직한 경관개선의 목표 상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쾌적한 도시’, ‘역사·문화가 있는 도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목표 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목·능선의 보호’와 ‘하천과 저수지 주변의 정비’, ‘공원·광장을 만들고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재산권 제한을 포함하는 규제도 감수할 정도로, 도시경관 형성 및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났는 바, 앞으로 경관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산림훼손 관련 허가와 새로운 택지개발 및 아파트의 건설허가 시 경관과 관련된 유도 및 지도, 경관계획의 첨부 등 경관관리를 사전에 포함할 수 있는 허가 절차의 마련과 공무원의 경관관련 교육이 사전에 필요하다.

일곱째, 공무원의 역할로서는, 앞으로의 경관개선 계획의 추진 시, 조례와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시에서의 각종 기준마련 등 사전준비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동반하여, 경관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시민들을 설득하고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개발사업자의 역할로서는, 개발사업 시행 이후의 각종 배려보다는, 개발계획 수립 및 공사 착공 시 등 사전에, 지역환경의 보전 또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조화되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동일 사안에 대해 시민, 공무원, 개발사업자의 경관의식을 동시에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성은 있었으나, 3자 간의 경관의식을 비교·고찰하기에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3자 간의 경관의식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고찰 연구가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인 용 문 헌

- 경기도. 2002. 외국인 전용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 132
- 경기개발연구원. 2002. 택지개발사업 추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방안 : 54-56
- 김용수·김수봉·곽지영. 2001. 대구시 대표경관에 대한 주민의식 분석, 국토계획 36(3) : 223-241.
- 김종구. 2001. 가로경관의 선호도 분석, 국토계획 36(6) : 251-258.
- 배현진·박영기. 1999. 피험자 개인특성에 관련된 가로경관 선호도 및 평가의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5(8) : 183-192.
- 변재상·정수정·임승빈. 1999. 도시 가로경관 요소가 시각적 선호도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7(2) : 9-18.
- 서주환·최현상. 1999. 토지이용변화를 이용한 농촌경관 선호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7(2) : 69-79.
- 성현찬. 1992. 성장환경의 차이에 따른 아름다운 경관 인지의 비교연구 -도시와 농촌 국민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0(3) : 64-78.
- 성현찬. 1999. 산림스카이라인보전을 위한 주민 의식 조사연구. 경기연구 3(1) : 111-135.
- 성현찬. 2003. 도시가로수의 관리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6(2) : 27-38.
- 양병이. 1990. 경관 선호도의 인지인자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7(3) : 9-20.
- 윤인규. 1993. 도시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목. 1993. 경주시 도시경관과 그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4) : 39-53.
- 정윤희. 2002. 경관의 계절별 시각적 선호도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경. 1996. 고양시 도시이미지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接受 2003年 8月 17日